

용띠 이청용 “빨리 뛰고파”

한국서 재활훈련 순조

다리 골절상에서 회복중인 이청용(23·불)이 다리 재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최근 조용히 귀국해 대외일정을 배제하고 가족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청용은 지난 31일 소속팀 불던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균형을 전했다.

이청용은 “가족과 연말연시를 보내려고 한국에 잠시 돌아왔다. 또 지난번 귀국 때처럼 국가 대표팀 의료진과 만나 현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부상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모든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뛰고 싶지만 아직은 체육관에서 재활훈련을 하는 단계다”라며 “보통 실내사이트와 겸기운동을 하고 균력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무중력 러닝머신을 이용한 훈련을 한다. 또 최근에는 일반 러닝머신에서도 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언제 팀에 합류해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게 될지 말할 수는 없지만 매주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진을 거듭하며 프리미어리그 20위로 강등권에 놓인 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5개월간 밖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힘들었다. 늘 나가서 함께 뛰고 싶은 마음이다”며 “직접 경기하는 것보다 TV를 통해 보는 게 더 떨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던은 이청용의 균형과 함께 팀 닥터인



조너선 토빈과의 인터뷰를 함께 실어 그동안의 회복 과정과 현 상태를 소개했다.

토빈은 “이청용은 부러진 다리뼈가 완전히 붙고 무릎과 발목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첫 단계 재활을 훌륭하게 마쳤다. 현재는 다리 힘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밟고 있으며 늘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태도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째 이런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동료들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내준 후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있다.

/연합뉴스

맨유, 꽃찌 블랙번에 충격패

박지성 풀타임 2-3... 아스널 박주영은 선수명단 아예 빠져

전남 드래곤즈 공격력 강화

호주대표 출신 사이먼 영입

전남 드래곤즈 연간권 판매

K리그·FA컵 25경기 5만원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호주 대표 출신의 사이먼 <사진>을 영입한다. 188cm 78kg의 체격을 갖춘 사이먼은 유연성과 득점력을

갖춘 공격수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호주 대표로 활약했다.

현재는 센트럴 코스트 매리너스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으며, 2010~2011 시즌에는 11골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에서는 12경기에 나와 5골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정해상 감독은 “지동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를 물색하던 중 호주 현지에서 사이먼의 플레이를 직접보고 영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이먼이 팀에 합류하게 되면 다양한 공격 전술 구사와 팀의 공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은 메디컬 체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사이먼과 3년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드래곤즈가 2012시즌 연간권을 판매한다.

바코드식 카드로 제작된 연간권은 5만원에 판매되며 올 시즌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K리그, FA컵 대회 25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연간권 구매는 구단 홈페이지(www.dragons.co.kr)와 페이스북(facebook.com/dragonsfc)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단 사무국(061-815-013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올 시즌 전남 홈경기 입장권 판매는 성인 7000원, 중·고생 3000원 그리고 초등학생 2000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런던올림픽 주요 종목

① 육상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축전인 여름올림픽 제30차 대회가 7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막을 올려 17일 간의 열전이 펼쳐집니다.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주요 종목과 한국의 메달 유망주를 소개합니다.

금 47개 ‘메달밭’

‘번개’ 볼트 3관왕·세계신 수립 최대 관심

한국, 김덕현 멀리·세단뛰기 ‘톱10’ 목표

7월 2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종목은 47개가 걸린 육상이다.

26개 전체 종목의 금메달이 302개이며 15.6%가 육상에 집중된 셈이다. 47개 세부 육상종목(남자 24개·여자 23개)에 나설 전 세계 2000여 명의 선수들은 지난 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전초전을 치렀다.

런던올림픽에서는 우사인 볼트(26·자메

이카)가 남자 100·200·400m에서 세계기록을 세우고 베이징 대회에 이어 3관왕을 재현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100·200m에서 각각 9초69와 19초30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고 400m 계주에서 우승하며 금메달 3개를 훔친 볼트는 단숨에 세계육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런던에서는 단거리 최강국을 자부하는 미국과 자메이카 간의 불꽃 뛰는 레이

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가 부활할지, ‘의족 스피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남아공)가 출전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메달권에 드는 확실한 후보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보, 남자 세단뛰기, 남녀 장대높이뛰기, 남녀 멀리뛰기 등 틈새 종목에서 톱10 진입을 노리고 있다. 올림픽 출전이 유력한 선수로는 남자 멀리·세단뛰기의 김덕현(광주시청), 남녀 장대높이뛰기의 김유석·최윤희, 여자 100m 허들의 정혜림, 남자 400m의 박봉고 등이 꼽힌다.

남자 10종 경기의 김건우와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 여자 100m 허들의 이연경은 지난달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났고 나머지 선수들도 태릉과 진천 선수촌에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 마감일인 7월 2일까지 런던행 티켓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알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카이어스클링,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케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멀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디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륜상품, 거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익세사리 일체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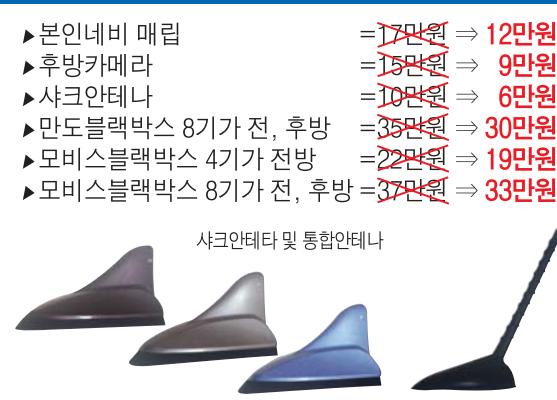
- 차량용 고급항수 2인자 상당 무료증정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